

교회 소식

- “열린 문으로(계 3:7-8)” 우리 마음과 눈의 문이, 삶의 길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한 해를 기원합니다.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린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밤 9시 합심기도 기억해주시시오. 금요일 밤 8:00 - 9:30 기도 다락방 열려 있습니다. 8:00부터 찬양하고, 8:30부터 기도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부흥과 복음 전파와 나라를 위해 (주보 기도제목).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시오.
- 예결산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위원장: 서영수 장로, 위원: 예배, 교육, 선교, 재정부장.
- 12월22일은 성탄주일예배로 자녀들과 연합으로 드립니다.
- 오늘 친교를 준비해주신 김종한 장로님 김현정 권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안내

- 대표기도: 정은영 집사 (이사야 12:2-6)
- 친교: 성창현 김은영 집사
- 12월 안내: 하영미 집사

예배 안내

- 주일예배:** 2:00pm, YouTube
English Service: 2:00pm, Zoom
토요새벽기도: 6am, 아몽크 본당
유치부 · 유년부 주일학교: 2:00pm
중 · 고등부(Youth Group)예배: 2:00pm, Zoom
-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 Zoom ID: 939 020 5125/Passcode: Sk (EM/Youth)

섬기는 사람들

- 담임목사:** 이민영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지휘자: 장효종 / **반주자:** 이현주

기도

예수님께 활짝 열어 모셔드린 교회가 되어, 예수님을 향해 예배의 자리로, 예수님과 함께 삶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교회. 하나님 은총의 징표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빛과 은혜를 받아 등불과 소금이 되도록
- 불의와 탐욕, 공포와 혐오, 이기심과 차별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 나라들을 다스리시도록
- 캄보디아 Paul Lee, 터키 Joshua Kavak, I 국 장이삭, 혼두라스 최문재, 베트남 김승훈, 모잠비크 정명섭 선교사. WEC 코리아 이정석, 우크라이나 권영봉 선교사

<2024년 단어>

열린 문으로

(요한계시록 3:7-8)



주소: 448 Bedford Road, Armonk, NY 10504

전화번호: (914) 874-3606

Email: nyskch@gmail.com

Homepage: www.nysekwang.org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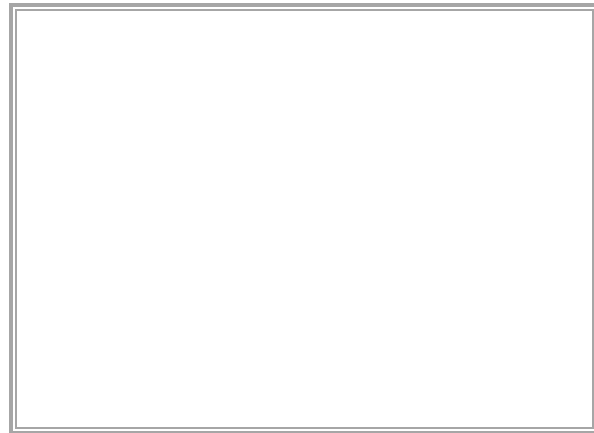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rder of English Service

- <2:00pm> Presider: Pastor Edwin Kim
- Opening Praise----- Together
- Call to Worship ----- Together
- Worship & Praise ----- Together
- Confessional Prayer----- Together
- Apostle's Creed ----- Together
- Offering ----- Together
- Prayer----- Pastor Edwin
- Word of God----- **John 1:9-14** ----- Pastor Edwin
- Sermon ----- **“Recognize the Light”** ----- Pastor Edwin
- Reflection Prayer----- Together
- Lord's Prayer ----- Together



Memo

주일 예배 순서

- <오후 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 예배를 위한 기도 ----- 인도자
- Worship Meditation
- *예배로의 초대 ----- “거룩 거룩 거룩” ----- 다함께
- Call to Worship
- *신앙고백 ----- 다함께
- Apostle's Creed
- *찬송 ----- 67(31)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 다함께
- Hymn 104(104) “곧 오소서 임마누엘”
- 기도 ----- 눅 1:68-79 ----- 이현주 집사
- Prayer
- 찬양대----- 주님은 내 기쁨 ----- 세광찬양대
- Choir
- *봉헌 -----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같이
- Offering
- *성경봉독 ----- **딤후 6:1-2** ----- 인도자
- Word of God
- 설교 ----- **유익을 받는 자들**----- 이민영 목사
- Sermon
- 인사 및 광고 ----- 인도자
- Greetings & Announcement
- *찬송 ----- 582(261) “어둔 밤 마음에 잠겨” ----- 다함께
- Hymn
- *축도 ----- 이민영 목사
- Benediction
- *일어나 주십시오 (Please stand if able)*

오늘의 말씀

유익을 받는 자들 (딤후 6:1-2)

지금 은 노예제 시대와는 다른 세상이지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셔서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나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교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이 빛나기도 방해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으로 존귀하지만, 세상 속에서 그 권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가문의 이름 값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노예제 철폐가 아니라 종과 주인 가운데, 남자와 여자 가운데, 지혜자와 야만인 가운데서 구별이 없는 새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리는 세상에서 차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고 섬길 권리, 의롭고 자비로울 자유를 행사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형제가 존귀한 것을 알고 누리야 합니다. 가지지 않은 사람이 겸손할 수는 없습니다. 자유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 존귀함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서로 존귀하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은 5 장부터 이어지는 3 편의 “존귀” 시리즈의 결말입니다. 외로운 과부를 “존중”하고, 잘 다스리는 장로를 “존경”할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귀하며, 자기 영혼 뿐 아니라 형제의 영혼을 맡아 책임질 것처럼 다스리고 가르치기에 두배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은 형제를 존중할 때 자기가 존귀해 진다는 것입니다. “유익함을 받는 자”는 번역에 따라 주인이 될 수도,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은 둘 다입니다. 전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일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한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의 주님일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가 세상에서 권리를 찾고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의롭고 사랑할 때 세워져 갑니다.